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의의와 추이과정¹⁾

송완용(서강대)

1. 머리말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독어학 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었고 가장 열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던 테마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결과의 분량이 개관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²⁾ 이처럼 연구의 초점대상으로 계속 부각되어 온 연유는, 무엇보다도 독일어의 고유 틀이 이 음운추이 현상을 기본 축으로 삼아 생성·발달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게르만어들로부터 이탈해 (고지)독어라는 새로운 언어단위가 발달·형성될 수 있도록 만든 언어사적 일대 사건이 바로 고지독어음운추이 현상이었다. 동시에 독어라는 개별언어 내부에서 고지독어와 저지독어라는 양대 독어형식들이 형성·발달하도록 만든 밑씨 구실을 하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일차적으로 고지독어 음운추이 발생유/무에 따라 독어권을 양대 방언권으로 분류하는 관례도 기실은 이러한 발달사적 배경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렇듯 통시축과 공시축 상에서 독어의 한가지 고유 좌표를 매김 지어주

1) 이 글은 <두뇌한국 21 서강-이화 언어학교육연구단 독어학(음운론)분야>의 3년차 상반기 연구주제인 <독어 역사음운론>하에 쓰여졌음. 이 글을 읽고 기술적인 실수들을 고치도록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고지독어 음운추이 현상은 1822년에 야콥 그림(Jacob Grimm)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의 양은 개관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 일례로 1936년에 간행된 Streitberg/Michels/Jellinek의 공동저술에는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원인과 보급문제>와 관련된 참고문헌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분량만 해도 벌써 11쪽에 달한다. 연구사를 정리한 400여쪽 분량의 Schwerdt(2000)의 저술이 최근 출간되었다.

는 핵심테마이기 때문에,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늘 연구의 초점거리가 되어왔다. 방대한 분량의 기존 연구들이 부단히 밝혀내고자 했던 문제들을 아래와 같이 몇 가지 범주들로 묶을 수 있다.

1) *고지독어 음운추이과정의 음성적 메카니즘과 그 위상* : 어떤 음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한 음성이 바로 다른 음성으로 대체되는 급격한 변화이었는가? 아니면 이른바 중간 변이단계들을 경유하는 단계적·점진적 변화이었는가? 이러한 추이로 인해 옛 음성체계와 새로 짜여진 체계간에 어떤 체계상의 변화가 생겨났는가? 또한 이러한 체계개편은 독어의 음성구조발달상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는가?

2)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진원지, 추이보급의 메카니즘과 그 영향* : 고지독어음운추이 발생의 유/무에 따라 독어권 전역은 발생지역과 미발생지역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발생지역의 경우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실현된 구간이 있고, 이 구간에서 멀어질수록 추이정도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구간으로 다시 구분된다. 대저 추이발생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 보급되었기에, 이처럼 특이한 지리적 추이형상이 그려지게 된 것일까? 또한 이러한 지리적 보급형상은 독어발달의 앞길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3)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원인* : 어떤 언어내재적 요인들과 사회·언어행위적soziopragmatisch 요인들이 음운추이를 유발시켰을까?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였을까?

4)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시기* : 이 음운추이는 문헌기록 이전시기에 이미 일어났고, 오랜 시간대에 걸쳐 일어난 복합적인 현상일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규정을 시도하는 자체부터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간적인 해석들이 가능할까?

고지독어 음운추이는 근본적으로 분석 기술학記述學적이 아닌 해석학解釋學적인 연구테마에 속한다. 그 까닭은 위에 언급했듯이, 추이결과만이 후대 문자시대의 기록형식으로 남아 있을 뿐 그 이외의 일체사항들은 선사시대라는 미궁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음운추이 현상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한 게르만 부족들의 장구한 대이동 기간과, 이 기간 중에 뒤엉켜 일

어났을 정치·사회 등 각종 문화적 재편과정들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비록 우리가 고지독어 음운추이에 관한 방대한 해석성과들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다만 기존의 주요 해석방법들의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각 해석방법의 개연성을 평가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개연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해석모형을 간추려 제시해보려는 시도가 바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 이 글은 위에 제시한 네 가지 문제영역들 중, 다음 두 가지 테마들을 고찰대상으로 삼았다: ①고지독어음운추이의 음성적 메카니즘과 그 위상, ②고지독어음운추이의 발생원인 중 언어내재적 요인.

2.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통시적·공시적 의의

야콥 그림은 1882년의 저술인 「Deutsche Grammatik(독문법), 2판」에서 음운추이(Lautverschiebung, LV)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는데, <고지독어 음운추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2차 음운추이>라고 명명하는 취향을 보였다. 이는 그림이 음운추이를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했기 때문이다: <장구한 기간에 걸친 인도유럽어들의 자음음운체계 발달과정에서 두 차례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제 1차 음운추이는 게르만어들이 다른 인도유럽어들로부터 분파되어 독립 어군語群으로 발달해 가도록 했으며, 뒤이어 일어난 제 2차 음운추이는 고지독어를 여타 게르만어들로부터 분파시켜 내는 역할을 했다>.

기원후 750년경 프랑켄제국 하에서 독어로 쓰여진 최초의 기록문헌에는 이미 2차 음운추이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이 형식의 독어는 독어의 조상언어인, 즉 1차 음운추이를 통해 생겨났던 게르만어 공통조어(Urgermanisch, ugerm.)와 비교해볼 때 음운체계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준다. 게르만어 공통조어 구조가 크게 변형·해체되어져 독자적인 개별언어들로 분파되어 나가는 과도기 단계의 게르만어를 전통적으로 후기 게르

만어Spätgermanisch(보다 정확히 말하면 후기 남게르만어Spätsüdgerm.라고 함), 혹은 고(대)고지독어 모어母語(Voralthochdeutsch, vahd.)라고 부른다. 이는 바로 2차 음운추이, 다시 말해서 고지독어 음운추이가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단계의 언어에 해당한다.

이 논문의 내용 전체에 대한 일종의 시공간時空間적 기준을 마련해두기 위해, 게르만어의 분파과정을 아래에 약술해보겠다.

게르만어를 세 가지 어군으로 분류하는 3분법이 오늘날 언어학사전들에 일반적으로 수용되어 있다: 동게르만어Ost-북게르만어Nord- 서게르만어Westgermanisch. 이러한 3분법은 일찍이 Schleicher(1860)의 계보수설에서부터 제안되었다.³⁾ Schleicher는 언어 친족관계에 의거해 여러 방언들이 하나의 공통모어로부터 혈통내림처럼 분파되어 나왔다고 해석했다. 일례로 서게르만어⁴⁾라고 하는 분파 게르만어로부터 저지독어·고지독어·앵글로 색슨어·프리스어 등과 같은 방언들이 다시 갈라져 나왔다. 계보수설은 Streitberg(1896) 등에 의해 계승되어 오랫동안 정설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게르만족들의 대이동이 전개되었던 오랜 기간동안, 혈통내림 방식의 단순한 언어적 분열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다는 사회·정치적인 해체과정과 새로운 통합과정 속에서 게르만어 공통조어의 구조가 여러 방식으로 재편되었으며, 그 결과 각종 게르만 방언들이 형성되어 나왔다고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언어발생학적 관계와 함께 문화적·주거고고학적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게르만어의 발달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게르만어들 간에 활발한 상호 접촉과 혼합과정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왜 북게르만어군과 고딕어군 간에, 또한 북게르만어군과 서게르만어군 간에 언어적 공통성이 성립하는지 그 까닭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예컨대 Krahe(1952)는 북게르만어군과 고딕어군간에 성립하는 공통특성 때문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고딕·북게르만어> 라는 어군이 성립했고 이와 함께 서게르만어군이 성립했다는 이른바

3) 원래 Schleicher는 게르만어를 북방어군-고딕어군-협어의 독어어군으로 분류했다.

4) 서게르만어군Westgermanisch이란 Müllenhof(1818)가 제안한 용어인데, Schleicher의 <협어의 독어어군>에 해당한다.

이분법을 제안했다.

3분법(동게르만어-북게르만어-서게르만어)을 주장한 Müllenhoff는 서게르만어 Westgermanisch라는 용어사용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 언어를 다시 잉베온어-이스트베온어-헤르미논어로 분류했는데, 일찍이 잉베온 Ingwäonisch족, 이스트베온 Istwäonisch족, 헤르미논 Herminonisch족이라는 종교공동체들이 실재했다는 역사적 사료에⁵⁾ 근거를 두었다. 따라서 이는 일종의 종교문화사적 사료에 입각한 게르만어 분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Maurer(1942)는 기원 후 1-3세기동안에 게르만족들의 역동적인 해체·혼합과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방언들간에 부분적인 언어공통성이 생겨났을 뿐 서게르만어라는 단일 언어가 실재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Maurer는 기원 후 3세기경에 형성되었던 게르만족들의 주요 주거지역들을 기준으로 삼아 5분법을 세웠다: ①북게르만어 Nordgerm. ②북해게르만어 Nordseegerm. ③베저강·라인강유역 게르만어 Weser-Rhein-Germ. ④엘베강유역 게르만어 Elbgerm(나중에 이 곳의 부족들이 알프스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알프스 게르만어> Alpen-germ.라고도 함). ⑤오더강·바이크슬강유역 게르만어 Oder-Weichsel-Germ(동게르만어에 해당함). 북해게르만어(=②)는 잉베온어에, 베저강·라인강유역게르만어(=③)는 이스트베온어에, 엘베강유역 게르만어(=④)는 헤르미논어에 각각 해당한다. 이들 중 ③④는 대륙에서 주거한 게르만족들의 언어들이었기 때문에 내륙게르만어 Binnengerma라고 부른다. 또한 북게르만어(=①)에 대응시켜, Schwarz(1951, 173쪽)는 ②③④를 남게르만어 Südgerm들이라고 부른다(전통적인 용어로는 서게르만어 Westgerm 라고 한다).

위에 열거한 게르만어들을 <고지독어음운추이 발생언어>와 <미발생언어>들로 구분해보면, 이 음운추이가 갖는 통시적·언어발달사적 의의를 쉽고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 진한 글자로 표시된 언어들이 추이발생언어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지독어 음운추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남게르만 어군

5) 이 세가지 게르만족들의 이름이 로마시대 역사가인 타키투스의 저술 <게르마니아, 제 2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광숙 편역(1999, 62쪽)을 참조!

에 속하는 특정 방언들의 음운체계상에 일어난 음성변화들이다. ②이 변화들은 추이발생언어들이 미발생언어들로부터 분리되어 발달하도록 만든 언어구조상의 특성에 해당한다. ③이러한 통시적 변화특성은 문자기록이 이루어진 중세초기에 형성된 고(대)저지독어(추이 미발생)와 고(대)고지독어(추이발생)라는 양대 독어형식들간의 대비對比를 통해 확인된다.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미발생 차이는 오늘날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운추이의 공시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게르만어들이 추이발생언어들과 미발생언어들로 분류된다. ②독어권이 고지독어(추이발생)와 저지독어(미발생)라는 양대 방언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지독어권의 경우라 할지라도 추이현상이 전체지역에 걸쳐 일관되게 실현되어 있지 않다. 알레만 방언과 바이에른 방언 같은 남부(=상부)독어권에서 추이가 가장 강력하게 실현된 반면, 남쪽에서 북쪽 지방으로 올라 갈수록 추이실현의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이른바 '계단식' 추이 보급 특성⁶⁾에 의거해 중부독어 방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즉 고지독어권이 상부독어권과 중부독어권으로 다시 분류된다.⁷⁾

-
- 6) 방언학상의 주요 개념들중의 하나인 이른바 '라인강 유역의 부채꼴 추이보급상'Rheinischer Fächer은 중부독어권의 '계단식 추이특성'을 여실히 입증해주는 개념이다. 바로 이와같은 추이분포상에서 우리는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진원지 및 발생시대, 보급메카니즘 같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 테마를 다루는 글을 별도로 곧 발표할 예정이다.
- 7)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한가지 유형이 폐쇄경음추이(폐쇄경음>파찰음·마찰음)이다. 전통방언학은 바로 이 폐쇄경음추이를 기준으로 삼아 독어방언권을 고지독어(상부독어·중부독어)권과 저지독어권으로 분류해왔다. 폐쇄경음추이의 이와같은 막중한 위상 때문에 이 추이유형을 <고지독어 음운추이>개념과 동일시 여기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예: Vennemann 1984. 이 문제와 관련해 또한 이 글의 주 31을 참조! 즉 펜네만은 폐쇄경음추이만을 통해 고지독어음운추이를 <설명>하고자 했다. 고지독어음운추이 개념하에 다른 추이유형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펜네만은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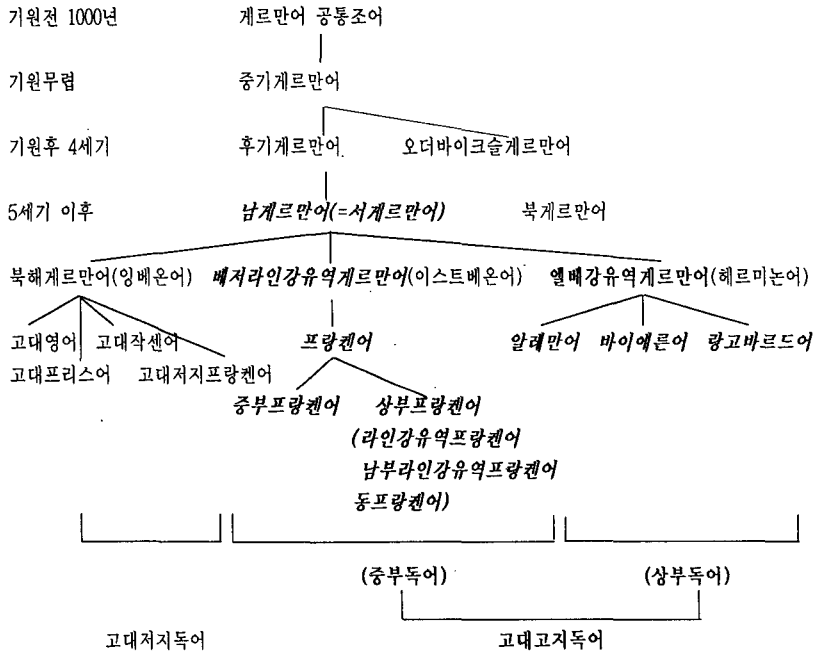


표 1: 고지독어 음운추이와 통시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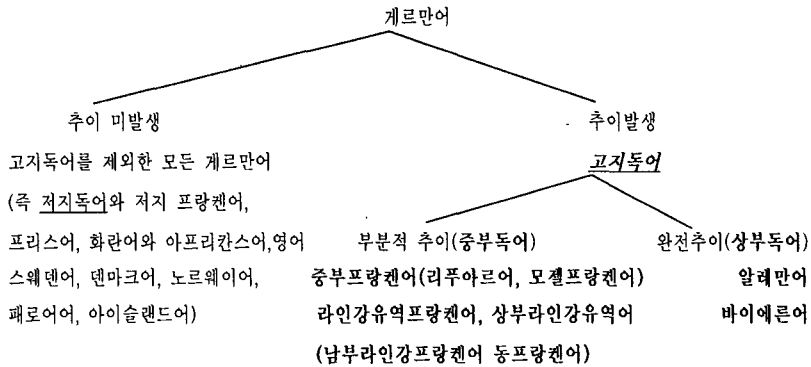


표 2: 고지독어 음운추이와 공시적 의의

3.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유형

고지독어 음운추이 결과가 문자로 기록된 고(대)고지독어(althochdeutsch: ahd.)를 추이 이전단계의 게르만어(예: 게르만어 공통조어urgermanisch: ugerm)와 동시대의 추이 미발생 언어인 고(대)저지독어(예: 고대 작센어 altsächsisch: as, 고대영어 altenglisch: ae)와 각각 대비해보면, 대저 어떤 추이들이 발생했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해볼 수 있다.

그림의 표준이론에 따르면, 1차음운추이 결과 형성된 게르만어(엄밀히 말하면 후기 서게르만어 spätwestgermanisch)의 폐쇄음들을 대상으로 2차 음운추이가 일어났다. 1차 음운추이와는 달리, 이는 음성위치와 환경, 음량 등에 따라 일어난 일종의 환경제약적인 음성변화였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폐쇄경음 Tenues > 파찰음, ②폐쇄경음 > 마찰음, ③폐쇄연음 Medien > 폐쇄경음.⁸⁾

후기 서게르만어의 폐쇄경음들인 p t k 와, 서게르만어상의 자음중복현상 결과⁹⁾ 생겨난 중복자음들인 pp tt kk가 아래의 3.1 및 3.2와 같이 변화했다.

3.1 파찰음화: 초두음위치와 자음 뒤 위치의 p t k와, 중복자음들인 pp tt kk가 파찰음들로 변화했다.

고(대)고지독어모어(vorahd) > 고대상부독어(altod)		추이지역
/t/ /tt/	>	/ts/ 고지독어권 전역
/p/ /pp/	>	/pf/ 상부독어, 상부프랑켄어, 라인강유역 프랑켄어 일부
/k/ /kk/	>	/kx/ 상부독어

8) Tenues(폐쇄경음), Medien(폐쇄연음)이란 전통 역사언어학, 특히 인도유럽어 문법에서 사용되었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이다. 이 두 용어들은 폐쇄자음들에만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현대 음성학상의 용어들인 fortis(경음), lenis(연음)와 구별된다. 이들은 폐쇄음과 마찰음들에 두루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즉 fortis는 폐쇄경음과 마찰경음들을, lenis는 폐쇄연음과 마찰연음들을 각각 가리키는 용어들이다.

9) 서게르만어 자음중복현상에 관해서는 이 글의 주 17을 참조!

예: urg. plegan	as. plegan	ahd. pflegan	'pflegen'	
werpan	werpan	werpfan > werfan	'werfen'	
holtaz	holt	holz	'Holz'	
werkon	ofr.mdl werkon	ahd(obd) werchon	'wirken'	
skapjan	vahd. skeppjan	as. skeppian	ahd. skepfen	'schöpfen'
skattaz	skatt	skat	skaz	'Schatz'
satjan	settjan	settian	sezzen	'setzen'

(Szulc 96-97에서 발췌)

- 위와 같은 위치들에서 폐쇄경음들인 p t k pp tt kk가 이처럼 상응하는 파찰음들로 추이되는 현상은 고대상부독어권(altoabd)에서만 일관되게 일어났다.
- /l/ /r/ 뒤 위치에서는 ahd. /pf/가 대개의 경우 다시 /f/로 추이되었다. 이는 아래의 II.2에 소개되는 마찰음화(p>f)와 합치되는 결과를 빚었다.
예: urg. helpān > ahd. helpfan > helfan (as. helpān) helfen.
- 예외: st sp sk tr ft ht 등과 같은 음운결합들에 나타나는 t p k는 추이를 겪지 않았다.

예: urg. stainaz	as. sten	ahd. stein	'Stein'
naxtiz	naht	naht	'Nacht'

3. 2 마찰음화: 폐쇄음들인 p t k가 다음과 같이 단순마찰음이나 이중마찰음으로 변화했다.

고(대)고지독어모어(vorahd) > 고(대)고지독어(ahd)	추이지역
/p/ > /f(f)/	
/t/ > /z(z)/	고지독어권 전역
/k/ > /x(x)/	(상부독어 + 중부독어)

3.1) 단모음 뒤 위치에서 p t k 음들이 상응하는 이중 마찰음으로 추이됨.

urg. opana	as. opan	ahd. offan	'offen'
urg. etan	as. etan	ahd. ezzan	'essen'
urg. makōn	as. makon	ahd. mahhōn	'machen'

- 예외: 중부 프랑켄어의 대명사들인 that it wat 만이 이런 추이를 겪지 않았다.

3.2) 장모음 뒤와 말음위치에서는 이중마찰음들(ff zz xx)이 단음화(短音化) 됨.

urg. xwata	as. hwat	ahd. (h)waz	'was'
urg. slēpan(an)	as. slāpan	ahd. slāffan > slāfan	'schlafen'
urg. taiknan	as. tēkan	ahd. zeihhan > zeichen	'Zeichen'

3.3 폐쇄경음화

1차 음운추이를 통해 생겨난 폐쇄연음들인 d b g (dh bh gh > d b g > d b g¹⁰)와 상응하는 중복자음들인 dd bb gg가 위치제약 없이 경음화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음화가 발생한 지역의 범위는 위의 과찰음화와 마찰음화에 비해 크게 제한되어있었다:

고(대)고지독어모어	고(대)고지독어	추이지역
d > t	상부독어와 동프랑켄어에까지 나타남, 그러나	
dd > tt	라인강유역 프랑켄어에서는 자음 뒤 위치와 중복자음인 경우에만 나타남	
b > p	상부독어에만 국한됨	
bb > p	(특히 바이에른어에서만 나타남)	
g > k	상부독어에만 국한됨. 그러나 상부독어에서	

10) 그림의 1차 음운추이가설에 따르면, 유기폐쇄연음들인 bh dh gh가 기음특성만을 상실하고 폐쇄연음들인 b d g로 바로 추이되었다(bh dh gh > b d g). 그러나 후대의 다수 학자들은 일차적으로 마찰음화 된 다음에, 다시 폐쇄음화 되었다는 가설을 제안했다(bh dh gh > b d g > b d g =다수가설, 송완용 2000, 32쪽). 따라서 urg.단계에는 b d g를, vorahd.단계에는 b d g를 설정할 수 있다.

gg	>	kk	조차도 일관되게 발생하지 않았음
urg. ðuxter	vorahd. doxter	rhfr. dohter	aod. ofr. tohter 'Tochter'
urg. biðjan	vorahd. biddjan	as. biddian	rhfr. ofr. bitten aobd. pitten 'bitten'
urg. sebjon	vorahd. sibbja	as. sibbia	rhfr. ofr. sibba / sippa
			aobd.. sippa 'Sippe'
urg. geban	vorahd. geban	mfr. rhfr. srhfr. geban	
		alem. geban / kepan	bair. kepan 'geben'
urg. xugjan	vahd. huggjan	mfr. rhfr. srhfr. ofr. huggen	
			aod. hucken 'hauen'

/d/ > /t/ 추이가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실현되었으며, 이 추이결과인 t음은 현대독어에 까지도 유지되고 있다(예: vahd. doxter, ahd. tohter nhd. Tochter). 이에 반해 b > p 와 g > k 추이는 상부독어에 국한되었다. 또한 그 추이결과인 p k경음들은 고(대)고지독어의 후기에 이르러 이미 다시 연음화 경향을 보여 주었다(예: frühaobd. hapen > ahd. habên / haban > nhd. haben)

3. 4 *ɸ* > d

위의 3. 3에서 언급했듯이, 폐쇄연음들의 경음화는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때 연음인 b g는 경음화 되었으나(p k), 곧 다시 연음화됨으로써 독어 음운체계상에는 b g 음들이 재성립하게 되었다. 이에 반해 연음 d의 경음화(d > t)는 중단없이 현대독어에 까지 지속되었다. 이 결과 음운체계상에 d음의 공백사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복원해내기 위한 또 한차례의 음운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일찍이 1차 음운추이 결과 게르만어 공통조어urg 때부터 성립해왔던 음운인 *ɸ*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해냈다(*ɸ* > d). 엄밀히 말하자면, 이 유형은 위에 제시한 3. 1, 2, 3의 유형들처럼 게르만어군으로부터 고지독어를 출산시킨 역할을 한 고지독어 음운추이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지독어 음운추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뒤따라 생겨난 음운변화였다는 점 때문에¹¹⁾, 이 변화를 광의의 고지독어 음운추이

11) 이 음운변화는 8 - 11세기 경에, 즉 고(대)고지독어시대 중에 일어났다. 따라서 이

념에 포함시키기도 한다.¹²⁾

4. 추이과정의 재구

4.1 폐쇄경음들의 추이과정

음운추이의 유형에 관한 앞의 II 장에는 추이의 시작단계(=입력음성)와 최종단계(=출력음성)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기실은 최종단계만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을 뿐 시작단계는 알려져 있지 않는, 즉 추정해 낸 재구再構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작형식에는 관계에 따라 별표 표시를 부쳐야 한다¹³⁾: *p *t *k > pf ts kx 혹은 ff ss xx.

또한 시작형식에 음성변화가 일어나 곧 바로 종료형식으로 추이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모든 음성변화에는 일종의 변이음 발달단계가 전제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일련의 중간단계들이 성립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어떤 시작형식에 추이가 일어났으며, 어떤 중간 변이음 단계들을 거쳐 역사적으로 확인된 최종형식에 이르게 되었느냐는 문제를 지금부터 해석(=재구)하고자 한다.

1) 단계별 추이설: 일찍이 소장문법학과 Junggrammatiker 시대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폐쇄경음들의 추이과정을 일종의 단계적 변화개념으로

를 고지독어내부inneralthochdeutsch 음성변화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frühahd. thiob ahd. diob / dieb 'Dieb').

12) 일례로 Bussmann의 언어학 사전(1990, 872-3쪽)은 <제2차 음운추이zweite Lautverschiebung> 개념하에 **p** > **d** 유형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13) 문자로 남아 있지 않은 옛 언어형식들을 재구해내는 방법으로는, 해당 언어체계의 발달법칙들에 의거해 재구해내는 방법(=내적 재구법)과 친족언어들간에 성립하는 대응형식들을 감안해 재구해내는 방법(=외적·비교 재구법)이 있다. 일례로 1·2차 음운추이법칙에 따라 현대독어 단어인 Dorn에 대한 게르만어와 인도게르만어 어형을 다음과 같이 재구해낼 수 있다:

nhd. Dorn < ahd. thorn < germ *Þorn < idg. *torn
 ahd. 내부음성변화(Þ > d) 1차음운추이 T^(h) > Þ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¹⁴⁾ 이러한 해석법을 뒷받침해주는 한가지 좋은 예가 신학자 타티안의 복음서를 옮긴 고(대)고지독어 번역본에 나오는 phorta라는 단어형이다. 이 단어는 라틴어의 porta로부터 차용되었다(ahd. phorta < lat. porta). 이 단어에는 순음 p의 파찰음화(p>ph)가 반영되어 있는 반면, 치음 t의 파찰음화(t>ts)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t>ts추이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p>ph추이는 아직 종료되지 않고 여태 진행중인 시기에 해당 단어의 차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p > ph추이반영 / t > ts추이 미반영이라는 결과가 빚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 우리는 치음추이(t>ts)가 순음추이(p>ph)에 앞서 일어났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이 추정을 뒷받침해주는 또 한가지 증거가 치음의 추이(t>ts)가 고지독어권에 가장 넓게 보급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가장 적게 보급되어 있는 연구개음추이(k>kx)는 가장 뒤늦게 발생했을 것이다.

즉 치음→순음→연구개음과 같은 조음위치 순서별로 폐쇄음추이들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법을 단계별 추이설(推移說)이라고 한다. 이 해석법은 또한 추이가 일어나는 시작음성들로 p t k 음들을 설정하고, 중간 변이단계들을 가정하지 않고 바로 최종단계의 음성들로 추이되었다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최초로 음운추이이론을 수립했던 야콥 그림의 입장과 별 차이가 없는 해석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계열별 변화설**: 개별음성들이 독립적으로 단계별로 변화한다는 식의 음성변화관을 소장문법학파는 보여 주었다. 뒤이어 등장한 구조주의 언어학파는 언어단위들간의 상호관련성(=상관성Korrelation), 즉 체계개념 하에서 언어변화를 해석하고자 했다. 한 언어체계 내에서 상관되어 있는 동류의 음운들은 특정 음운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음운변화 때에는 음성들이 날개로 변화하지 않고, 한 음운계열에 속하는 일단의 음운들이 동시에 변화한다. 이러한 음성변화관을 <계열별 변화설>Reihen- schrittheorie이라고

14) 이러한 해석법의 예들로는 Braune 1874, Frings 1924(1956), Aubin/Frings/Müller1926, Lessiak 1933와 Sonderegger1979, 128쪽이 있다.

한다.15) 음성변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석해낼 수 있다는 장점, 즉 이른바 음운론적 관점의 음성법칙Lautgesetz을 수립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의 단계별 추이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난다.16)

3) 고(대)고지독어 모어母語의 자음체계: 고(대)고지독어권과 고(대)저지독어권이 일차적으로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유·무를 통해서 구분되지만, 이 양대 언어권의 모어들은 음운추이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서로 다른 자음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가정된다. 이 두 자음체계상의 차이가 나중에 음운추이의 발생(=고지독어)과 미발생(=저지독어)의 향방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이 두 자음체계들을 대비시켜 각각의 특징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다.

고(대)고지독어 모어voralthochdeutsch는 이른바 서게르만어 자음중복현상west- germanische Konsonantengemination¹⁷⁾의 결과, 다음과 같은 자음체계로 재편되었다고 추정된다.18)

15) <계열별 변화설>에 관해서는 Wiesinger 1982를 참조하기 바람!

16) 고지독어 음운추이 현상들을 음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추이의 내적 과정들(=메카니즘)에 관한 설명모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특히 Fourquet 1948, Moulton 1954, Kufner 1960, Penzl 1964, 1971: 81-82, Reiffenstein 1965, Lerchner 1971: 142-146, Simmler 1981 등이 있다.

17) 서게르만어군에 속하는 언어들은 자음중복화(자음의 장음화현상 Konsonantendehnung, -verdoppelung이라고도 함)라는 규칙적인 음성현상을 공유하고 있다: ① j i 와 w u 앞에서는 r를 제외한 모든 자음들이 중복되며, ② l r n 앞에서는 파열경음들(t p k)만이 중복된다(예: 동게르만어군의 got. bidjan : 서게르만어군의 ahd. bitten). 이 음성현상 결과, 고고지독어 모어의 자음체계는 단(순)자음들 Simplex과 이에 상응하는 중복자음들Geminate이 대립하는 체계로 재편되었다. 즉 기존의 조음강도 특성(경음/연음 특성)이외에 또한 길이(음량)특성이 자음체계상의 대립특성들로 기능하게 되었다.

18) Szulc 1987, 94쪽에 의거했음.

p	t	k	pp	tt	kk	
f	ɸ	s	ff	ɸɸ	ss	xx
b	d	g	bb	dd	gg	
m	n		mm	nn		
	l			ll		
w		j	ww		jj	

표 3: 고(대)고지독어 모어의 자음체계

진한 글자로 표시된 장애음 체계¹⁹⁾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다:

- 조음위치면에서 순음·치음·연구개음 특성들이 변별적이다.
- 다른 친족언어들(예: 고대프랑켄어 모어 *voraltfränkisch*)의 장애음체계 경우와는 달리 상대진동 유·무특성(유성/무성 특성)이 변별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대신, 폐쇄 유·무특성이 변별기능을 한다. 즉 두 개의 폐쇄음 계열과 한 개의 마찰음계열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폐쇄:마찰 대립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t/ - /d/) - /ɸ/, (/p/ - /b/) - f, (/k/ - /g/) - x.
- 괄호 속에 표시된 폐쇄음들(예: (/t/ - /d/))간을 구분해주는 변별성분은 유성/무성 특성이 아니고, 조음강도 특성(연음/경음)이다.
- 또한 단순 장애음체계와 중복 장애음체계가 양립하고 있어 체계대칭성이 엄격하게 성립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마찰음들의 기능부담량은 매우 낮았다.²⁰⁾

4) 추이과정: 계열별 변화라는 음운론적 관점에서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내적 과정을 재구해내려는 시도는 대부분 <기음화 가설> *Behauchungs-*

19) 자음을 장애음 *Obstruenten*과 공명음 *Sonoranten*으로 분류할 수 있다. 파열음과 마찰음, 파찰음들을 합쳐 장애음들이라고 한다. 이 세가지 자음들의 조음과정에는 여타 자음들에 비해 구강내의 공기흐름을 뚜렷이 저지하는 장애현상들(=폐쇄 및 마찰)이 필수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애음들을 순수자음이라고도 부른다. 공명음으로는 비음(m n)과 유음 (r l), 전이음(w j)등이 있다.

20) 이 문제에 관해서는 Reiffenstein 1965를 참조!

theorie에 의거하고 있다.²¹⁾ Braune 1874, Willmanns 1911이 제안한 이 가설에 따르면, 폐쇄경음들인 /p t k/에 대해 유기음화된 [th ph kh]라는 변이음들이 생겨났는데, 바로 이 변이가 고지독어 음운추이를 유발시킨 단초가 되었다.

제 1단계(기음화 단계): 음성학 관점에서 볼 때, 모음 뒤 위치는 비강세(=약화) 위치로 정의된다.²²⁾ 이 결과 이 위치에 나타나는 p t k음들은 폐쇄약화를 겪게되어 유기음화有氣音化 된 변이음으로 실현된다(p t k > ph th kh). 즉 제 1단계로서 p t k음들이 두 가지 변이음들로 실현되었다: ①모음 뒤 위치에서 유기변이음 ph th kh로 실현됨. ②그 밖의 위치들에서는 무기변이음 p t k로 실현됨. 그러나 뒤이어 모든 위치의 폐쇄경음들이 유기음화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무기음이었던, 즉 초두음 위치와 자음 뒤 위치의 폐쇄음들도 유기음화되었다. 다만 마찰음들과 결합된 경우들은 음성학적인 이유 때문에 추이되지 않고 무기음 특성을 계속 유지했다(예: sp st sk ft ht tr 등).

제 2단계(파찰음화 및 마찰음화 단계): 이렇게 유기음화된 폐쇄음들은 강화되어 파찰음화 되는데(ph th kh > pf ts kx)²³⁾, 이 단계가 새로운 추이를 불러오는 전기轉機가 된다. 파찰음이 다시 변이를 겪게 되었는데, 강세위치, 즉 초두음 위치나 자음 뒤 위치에서는 파찰음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이에 반해 약화위치, 즉 모음 뒤 위치에서는 이완특성이 보다 늘어난 결과 ff zz xx 같은 마찰변이음(=마찰장음·중복마찰음)들로 실현되었다.

21) 고지독어 음운추이 연구에 크게 기여한 Fourquet 1948, 1954, Moulton 1954, Kufner 1960, Schützeichel 1961, Penzl 1964등은 모두 기음화 가설에 입각하고 있다.

22) Willmanns 1911, 55쪽, 60쪽과 Schirmunski 1962, 350쪽을 참조! 즉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게르만어의 액센트 특성에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단초가 내재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3) Penzl의 저술(1964)은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내적 과정을 재구해 일종의 모형으로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Penzl에 따르면 유기음들이 강화되어 파찰음화 되는 과정이 특히 폐쇄치음들의 경우 세계의 여러 언어들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겨난 마찰변이음들 중에서 순음인 ff와 연구개·후두음인 xx는 기존의 중복자음들인 ff xx 와 일치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중복자음들이 기능부담량이 낮았기 때문에 새로운 중복자음들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합치 현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처음의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음들과도 합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①기존의 ㅍ-마찰음이 d음으로 추이되고, ②기능부담량이 낮은, 즉 사용빈도수가 낮은 기존 중복음인 ㅍㅍ는 고(대)고지독어에서 tt td dd로 나타나며, ③기존의 s - ss음들은 기능부담량이 매우 높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제 2단계에서처럼 모든 유기음들이 파찰음화 되었다: pf ts kx(강세위치, 즉 초두음 위치에서), 혹은 p:f t:s k:x(약화위치, 즉 모음 뒤 위치에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중복자음들인 pp tt kk는 위의 제 1단계 변이현상처럼 일차적으로 유기음화 되었다: p:h t:h k:h. 뒤이어 제 2단계 변이과정에 따라 파찰음들로 되었다: p:f t:s k:h. 이로 인해 중복자음에서 생겨난 이러한 파찰음들은 모음 뒤 위치의 단순자음으로부터 생겨난 파찰음들과 일치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졌다. 상호간에 구분이 안되는, 즉 대립관계가 표시되지 않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이 마찰음 탄생을 재촉하는 촉매역할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음 뒤 위치에 나타나는 단순자음의 파찰음이 이제 이중마찰음(=장長마찰음)으로 변이(예: p:f > ff)됨으로써, 중복자음의 파찰음(예: p:f, 이 음은 다시 pf로 되었음²⁴⁾)과 대립되는 음으로 표시될 수 있게 되었다.²⁵⁾

파찰음이 이처럼 마찰음과 파찰음으로 분열된 단계는 단순한 변이음화 단계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의미대립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음운화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변이음 단계들에 불과한 위의 1단계(유기음화 단계) 및 2단계(파찰음화 단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단계이다.²⁶⁾

24) 즉 중복자음의 파찰음들인 p:f t:s k:x는 나중에 pf ts kx음으로 각각 발달했다

25) 제 2단계에서 생겨난 파찰음이 이렇게 다시 마찰음과 파찰음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마찰음화와 파찰음화 과정들의 근거에는 기존의 중복자음(=장長자음)들이 촉매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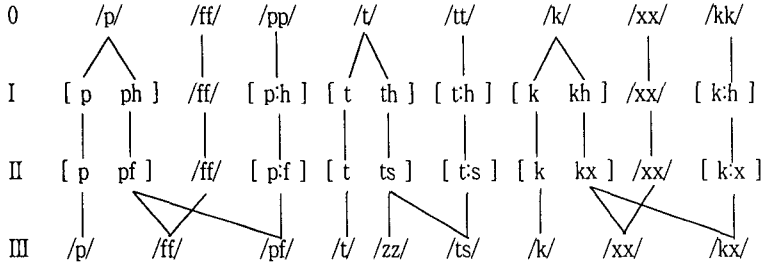
ahd. scepfen (< skappjan) ‘schaffen’ ≠ ahd. scaffon (< skapon) ‘gestalten’
 ahd. wizzi (< witti) ‘Verstand’ ≠ wizzan (< witan) ‘Wissen’
 ahd. strechen (< strekkjan) ‘strecken’ ≠ ahd. rehhan (< wrekan) ‘Rache nehmen’
 (Szulc 1987, 99쪽에 나오는 예들을 인용했음)

이상과 같은 폐쇄음 추이과정의 각 단계들을 다음과 같은 표 형식으로 재구해 볼 수가 있다(Szulc 1987, 100쪽을 참조했음).

26) 관례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오고 있는 <음운추이>Lautverschiebung(혹은 자음추이 Konsonantenverschiebung) 라는 용어사용의 적부문제에 관해 이제 잠시 언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용어는 1822년에 야콥 그림에 의해 처음 도입되어져 소장문법학파에 의해 후대에 전수되었다. 영어의 sound shift에 해당하는 이 용어는 그러나 지금까지 이 글에서 설명한 폐쇄음추이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용어이다. 음운추이란 음운목록이 줄어들거나 늘어남이 없이, 다만 기존 음운들이 변별성분상에서만 변화를 겪는 현상을 원래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이 글이 테마로 삼고 있는 폐쇄음추이는 13쪽의 본문에서 진한 글씨로 표시된 대목처럼 한 음성이 두 개의 음성들로 분열되고, 동시에 두 개의 음성들이 하나의 음성으로 합치되는 과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부적합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은 물론 학교와 같은 일상현장들에서 <음운추이>라는 용어사용이 완전히 고착화 되어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 0 : 시작단계(친족언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재구된 음운들임)
- I : 유기음화 단계(변이단계, 재구해 낸 변이음들임)
- II : 파찰음화 단계(변이단계, 재구해 낸 변이음들임)
- III : 종료단계: 마찰음화 및 파찰음화 단계(음운화단계, 고지독어시대의 기록을 통해 확인된 음운들임)

표 4: 폐쇄경음 추이의 계열별 변화과정

- 위와 같은 추이과정들을 통해 체계재편이 이루어져 새로운 장애음 음운 체계가 생겨났다. 추이이전의 경음체계(표 3을 참조!)와 비교해볼 때, 이 새로운 음운체계에 어떤 주요 구조변화들이 빚어졌는지를 간추려 덧붙이겠다:
- 독어의 장애음체계 상에 지금껏 없었던 파찰음이라는 새로운 음성계열이 추가되었다.
 - 새로 생겨난 마찰음들의 경우, 위치제약적인 변이형들이 나타났다. 즉 단어중간음 및 모음들 사이에서는 중복마찰음이 나타난 반면, 장모음 뒤와 말음위치에서는 단순마찰음으로 실현되었다.
 - th>zz, z 같은 새로운 마찰치음들이 추가되어 마찰음계열은 과잉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음운추이 현상의 입력언어에 해당하는 고(대)고지독어 모어는 단순 장애음체계와 중복 장애음체계가 대립하는 이원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음운추이 결과, 이러한 체계의 이원성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장애음체계 상에서 조음강도특성, 즉 경음/연음특성(및 유성/무성 특성)이 중

요한 변별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음강도 특성의 이와 같은 변별기능은 현대독어의 장애음체계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끝으로 고대 프랑켄방언 모어 voraltfränkisch의 장애음체계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애초에 이 언어는 고지독어 음운추이가 발생하지 않은 북헤게르만어의 언어적 성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운추이가 발생한 내륙게르만어, 즉 고(대)고지독어 모어와는 구조적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 프랑켄방언 모어의 장애음체계를 개관해보고 앞에서 상세히 분석해 본 고(대)고지독어모어의 체계와 대비시켜보면, 음운추이 발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해낼 가능성도 있다.

고지독어 음운추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획기적인 가설들을 제안한 Lerchner 1971, 192쪽에 따르면, 고대 프랑켄어 모어의 장애음체계는 다음과 재구된다.

무성폐쇄음 계열	t		p	k
유성폐쇄음 계열	d		b	g
무성마찰음 계열	ʈʈ	ss	ff	xx
유성마찰음 계열	d	z	v	g

표 5: 고대 프랑켄방언 모어의 장애음체계(재구형)

위의 체계는 이 글의 11쪽에 제시된 고(대)고지독어 모어의 장애음체계와는 근본적인 차이점들을 보여 주는데, 이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 고대 프랑켄방언 모어는 이상적인, 즉 안정적인 3항 4계열 장애음체계를 취하고 있다. 다만 마찰음계열들만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마찰치 음향이 예외적으로 성립했다.
- 폐쇄특성·성대진동(유성/무성)특성이라는 두 개의 변별성분들을 통해 4개의 장애음계열들이 상호 대립관계를 형성했다.
- 중복자들이 변이음으로만 실현될 수 있을 뿐, 체계상의 음운으로서는

가능하지 못한다. 즉 중복자음들은 변별음운이 아니고 변이음에 불과하다. 이는 단순 장애 음운체계와 중복 장애음운체계라는 이원적 체계를 형성했던 고(대)고지독어 모어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차이나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근거해, 고대 프랑켄 방언모어에서 음운추이가 발생하지 않은 근본이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이 언어체계는 유성/무성 변별성분에 따른 대립계열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조음강도 성분은 필수성분이 아닌 잉여성분에 불과했다. 조음강도라는 변별성분을 통해 촉발된 <폐쇄음의 유기음화>가 다른 아닌 고지독어 음운추이 과정의 첫 단추를 꿰는 단계였다(이 글의 12쪽에 나오는 <제 1단계>를 참조!). 요컨대 유기음화 형성을 위한 조음강도의 변별성이라는 전제조건이 장애음 체계상에 결여되었기 때문에 고대 프랑켄방언 모어에서는 음운추이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Lerchner 1971, 193쪽을 참조).

둘째, 음운추이과정의 <제 2단계>는 파찰음화 단계인데, 이는 마찰음화와 파찰음화라는 종료단계(제 3단계)를 풀어내는 고리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러한 제 2단계의 파찰음들을 발달시킨 음운론상의 촉매역할을 해내었던 장본인이 바로 중복자음들이었다. 그러나 고(대)고지독어 모어와는 달리 고대프랑켄방언 모어에는 중복자음음운들이 부재했기 때문에 파찰음이 생겨날 수 있는 음운론상의 촉매제가²⁷⁾ 사실상 없었던 것이다.

셋째, 마르띠네의 언어변화 가설에 따르면, 체계상의 안정성(대칭성)을 복원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역으로 말하면 체계상에 생겨난 불균형(비대칭성)상태를 제거해내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변화가 발생한다. 이 가설을 적용해 고지독어 음운추이 발생/미발생문제를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요약했듯이, 장애음체계 표들을 대비해 본 결과, 고대프랑켄어 모어의 체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칭구조 인데 반해, 고(대)고지독어 모어체계는 다소 불안정한 구조로 판명된다. 전자의 언어에서는 왜 음운추이가 일어나지

27) Martinet 1964는 언어변화를 유발하는 동인에 해당하는 언어내적인 요인에 대해 <음운론상의 촉매제>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않고, 후자의 언어에서 발생하게 됐는지? 그 까닭을 이러한 구조의 불안정성을 통해서 해석해볼 수도 있다.²⁸⁾

5) 폐쇄음추이 과정에 관한 다른 해석방법

고지독어 음운추이 문제를 해석한 대다수 역사언어학자들은 기음화 가설을 출발이론으로 삼았다. 고(대)고지독어 모어상의 폐쇄경음들(p t k)로부터 유기음화(ph th kh)된 변이음들이 생겨 났는데, 바로 이 변이가 음운추이를 유발시킨 단초가 되었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법을 뒷받침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추이를 겪지 않은 음운결합들인 /st sp sk tr ft xt/이다. 이 결합들상의 폐쇄음들은 인접마찰음들이나 /r/음으로 인해 조음상 기음화 현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기음화 되지 않고 무성폐쇄음으로 유지되었다. 결과적으로 음운추이를 겪지 않은 예외가 되었으며, 그 이유는 추이과정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유기음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기음화가설에 모두 의거하고 있다해도, 해석상에 기본적인 한가지 차이점을 보여주는 사항이 있다. 이 글의 12-14쪽에 소개한 추이과정에 따르면, 폐쇄음들이 유기음화 되었고, 이 유기음들이 일차적으로 모든 위치들에서 파찰음들로 발달했다. 이어서 이 음들이 강세위치에서는 그대로 파찰음으로 유지되었으나 약화위치에서는 마찰음으로 변이되었다(아래의 표 6을 참조!). 이와는 달리 유기음으로부터 바로 파찰변이음들(강세위치에서)과 마찰변이음들(약화위치에서)이 갈라져 생겨났다는 또 다른 해석법(=표 7)이 있다. 이 두 가지 해석법들을 적용해 예컨대 폐쇄치음인 /t/의 추이과정을 표시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28) Coseriu 1974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러한 구조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음운추이를 일으켜야 한다는 <목표>Finalität가 고대고지독어 모어체계상에 생겨나게 되었다.

vahd.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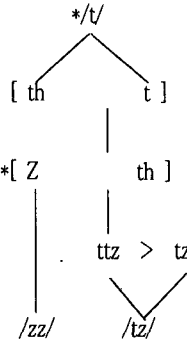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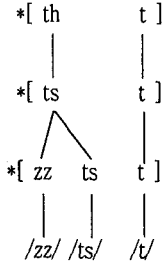


표 6: 치음의 추이과정 해석1 표 7: 치음의 추이과정 해석2
(Sonderegger 1979, 131쪽)

유기음화가 고지독어 음운추이를 유도 해냈다는 기음화가설과 전혀 다른 견해를 제안한 인물이 Hammerich(1955)이다.²⁹⁾ 그는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첫 단추가 무성폐쇄음들의 장음화와 강화현상을 통해 풀려졌다고 가정했다. 고(대)고지독어 모어의 장애음체계에서는 유성/무성특성이 필수성분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음들(b d g)이 무성특성을 취했다. 이로 인해 연음들은 경음들(p t k)과 동일해 질 가능성이 상존했다. 경음들은 장음화(pp: tt: kk:) 됨으로써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 중복자음들(pp tt kk)의 위상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가 다시 빚어졌다. 다시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중복자음들은 파찰음화(pf ts kx)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음운추이가 본궤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4. 2 폐쇄연음들의 추이과정

언어변화라는 테마를 언어학의 최대이슈로 부각시켜 역사언어학 시대를 꽃피웠던 점이 소장문법학과의 공로였다. 그러나 언어변화를 개별적으로 고

29) Hammerich의 견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Lerchner 1971, 143-144쪽과 323쪽에 나와 있다.

찰하는 원자론적 연구법 Atomismus을 적용했기 때문에 언어체계 관점의 연구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고찰한 폐쇄경음들의 추이와 이제 고찰하고자 하는 폐쇄연음들의 추이가 완전히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된 음성과정들이라는 견해에 대해 일찍부터 이론異論이 제기되었다.³⁰⁾ 즉 이 추이들이 일종의 인과관계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식으로 새롭게 해석되었다.

앞에 해석한 폐쇄경음 추이가 발생함으로써(p, t, k > pf f(f), ts z(z), kx x(x)), 고(대)고지독어 모어의 장애음체계 상에는 두가지 변화들이 일어났다:

- p t k 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체계상에는 공백상태가 빚어졌다.
- b d g 음들만이 성립했기 때문에, 기존의 경음 : 연음 대립이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장애음체계상에 일종의 조정활동이 뒤따라 일어났을 것이다.

- 장애음체계내에 경음계열(p t k)이 없어지고 연음계열(b d g)만이 성립하게 되었기 때문에 연음들이 경음형식을 취하게 되는 경향, 즉 경음화라는 변이경향이 생겨났다. 따라서 연음계열에서의 경음화된 변이음발달은 경음계열의 유기음화가 사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혹은 이와는 다른 정반대 해석을 하자면, 연음계열에서 경음화 변이음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의 경음들은 새로 생겨난 이 변이음들과 일치되는 경우를 피하려고 유기음들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두 가지 과정들인 폐쇄경음 추이와 폐쇄연음 추이는 서로 무관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인과관계 틀 속에서 일어났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Lerchner 1971, 147쪽을 참조).

p t k음운들이 없어진 빈자리가 일종의 흡입작용을 일으켜, 주변의 음운들을 p t k음운들로 변화시키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³¹⁾

30) 이러한 새로운 해석법의 예로는 Fourquet 1954, Moulton 1954, Hammerich 1955, Penzl 1971: 42, 1975: 84등이 있다.

31) Martinet (1964, 59-62)는 언어체계상의 내적 동인들에 의한 음성변화들로 두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변화 1(=무성폐쇄음 추이): // → /p/ → /pf/

변화 2(=유성폐쇄음 추이): /b/

그러나 후대의 독어음운체계 발달에 미치는 결과 면에서 평가할 때, 이 폐쇄연음 추이과정(b d g > p t k)은 앞에서 설명한 폐쇄경음 추이과정에 비해 영향력이 훨씬 적었다.³²⁾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고(대)고지독어시대에 p k 음들이 다시 연음화 되어 b d음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b>p, g>k추이는 상부독어 일부에서만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추이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치음인 d>t추이는 고지독어권에 폭넓게 보급되었고, 현대 독어에 까지도 관철되어 있다. 이 점이 바로 뒤이어 고(대)고지독어상에서 β >d추이를 유발해 낸 원인이 되었다고 또한 해석한 바 있다.³³⁾

5. 맺는 말

고지독어 음운추이 현상은 일종의 재구학再構學·해석학적인 연구테마에 속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대한 분량의 기존 연구성과들은 궁극적으로 가공적架空的인 모형에 불과함으로 해석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역사상의 독어들을 탄생시켜 낸 언어적 밑씨 구실을 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독어방언권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고리 구

① 흡입유형,

② 밀침유형: 한 음운(A)이 변한 결과(B)가 기존음운(B)과 일치될 경우, 이 음운은 상대적으로 기능부담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중한 부담량을 줄이고자 기존의 음운이 다른 음운(C)으로 변화한다. 그러나 이 변화는 다시 다른 기존 음운을 밀쳐내어 또 다른 음성변화를 일으키는 식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

변화 1: /A/ → 새로운 /B/

변화 2: 기존의 /B/ → /C/

32) 이런 까닭에 폐쇄경음 추이를 고지독어 음운추이 개념과 동일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 Vennemann(1987)은 폐쇄연음 추이를 고지독어 음운추이 범주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33) 이 글의 9쪽을 참조!

실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테마는 항상 독어학 연구의 초점 안에 머무르고 있다. 내적·외적(=비교) 재구법과 일반 언어이론 지식에 의거해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종족학적·역사적·지리적·정치사회적 보조자료를 통해 해석의 타당성을 입증해볼 수도 있다.

고지독어 음운추이와 관련해 기존연구들이 부단히 밝혀내고자 했던 문제들을 네가지로 범주화 할 수 있다: ①고지독어 음운추이과정의 음성적 메카니즘과 그 위상, ②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진원지, 추이보급의 메카니즘과 그 영향, ③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원인, ④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시기. 테마 자체의 복합적 성격과 기존연구성과의 방대함 때문에, 이 글은 다음 두가지 문제영역들만을 고찰대상으로 삼았다: ①고지독어음운추이의 음성적 메카니즘과 그 위상, ②고지독어음운추이의 발생원인들중, 언어내재적 요인.

-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음운추이 결과들을 자료로 삼아 추이의 유형들을 간추렸다. 일종의 인과관계 틀 속에서 추이가 진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고지독어 음운추이 과정을 광의로 해석 하고자 했다. 즉 폐쇄경음추이·폐쇄연음추이· $p > d$ 추이를 모두 이 과정에 포함시켰다.
- 고(대)고지독어 모어와 고(대)저지독어 모어는 추이 프로그램 상에서 입력언어들에 해당한다. 그러나 출력의 결과는 달랐다. 즉 전자는 추이 발생언어가 되었으나, 후자는 미발생언어로 남았다. 이는 이 두 입력언어들이 체계·구조면에서 차이났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추이발생과 미발생을 빚어낸 언어구조적 원인들을 규정해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고(대)상부독어 모어와 고(대)프랑켄독어 모어의 장애음체계들을 대비하는 방법을 택했다.
- 추이과정에서는 음성들이 날개로 변화하지 않고, 일단의 음운들이 소속된 음운계열들이 변화한다. 즉 이른바 <계열변화설>에 의거해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내적 진행단계들을 재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음운추이의 내적 진행과정들을 재구하면서, 언어체계상의 내재적 구조특성으로부터 추이발생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을 밝혀내고자 했다. 그러나

풀려진 이 실마리가 시공간時空間상의 종족적·정치사회적·문화적 손동작들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감기고 꺾어져 고지독어 음운추이라는 특이한 꼴의 옷감이 만들어졌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낸 것이 없다.³⁴⁾ 이 문제까지 해석해 낼 때 우리는 <고지독어 음운추이>라는 테마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비로소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송완용 1999. 음성학 산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 송완용 2000. 그림의 음운추이이론과 반그림가설. 독일어문학 제 13집, 323-349쪽.
- 이광숙 편역. 1999. 타키투스의 게르마니아. 서울대학교 출판부.
- Aubin H. Frings Th. Müller, J. 1926. Kulturströmungen und Kulturprovinzen in den Rheinlanden. Leipzig.
- Braune, W. 1874. Zur Kenntnis des Fränkischen und zu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in: PBB 1: 1-56.
- Bussmann, Hadumod. 1990. Lexikon der Sprachwissenschaft. Stuttgart.
- Coseriu, E. Synchronie, Diachronie und Geschichte. München 1974.
- Fourquet, J. 1948. Les Mutations consonantiques du germanique. Essai de position des problemes. Paris.
1954. Die Nachwirkungen der ersten und zweiten Lautverschiebungen. ZMF 22.
- Frings, Th. 1924. Rheinische Sprachgeschichte (=Mitteldeutsche Studien 16(1956): 1-54.
- Grimm, J. 1819. Deutsche Grammatik. Göttingen(18222).

34) 본인은 이 문제를 해석해내기 위해, <고지독어 음운추이의 발생시기와 보급메카니즘>이라는 글을 올해 안에 발표하게 될 것이다.

- Hammerich, L.L. 1955. Worin besteht die hochdeutsche Lautverschiebung?, in: PBB.
- Krahe, H. 1954. Sprache und Vorzeit. Heidelberg.
- Kufner, H.L. History of the central Bavarian Obstruents, in: Word 16: 11-27.
- Lerchner, G. 1971. Zur II. Lautverschiebung im Rhenisch-Westmitteldeutschen. Diachronische und diatopische Untersuchungen. Halle /S.
- Lessiak, P. 1933.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Kosonantismus., Brünn.
- Lunt, H.G.(Hg.) 1964. Proceedings of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Cambridge,Mass., The Hague.
- Maurer, F. 1942. Nordgermanen und Alemannen. Studien zur germanischen und frühdeutschen Sprachgeschichte, Stammes- und Volkskunde. Bern München.
- Moulton, W.G. The Stops and Spirants of Early Germanic, Lg. 30: 1-42.
- Penzl, H. 1964. Die Phasen der ahd. Lautverschiebung, in: Festschr. T. Stark: The Hague.
- 1971 Lautsystem und Lautwandel in den ahd. Dialekten., München.
- Reiffenstein, I. 1965. Geminaten und Fortes im Althochdeutschen, in: Festschr. Wissman, 61-77.
- Schirmunski, V.M. 1962. Deutsche Mundartkunde. Vergleichende Laut- und Formenlehre der deutschen Mundarten. Berlin.
- Schleicher, A. 1860. Die deutsche Sprache. Stuttgart.
- Schützeichel, R. 1961. Die Grundlagen des westlichen Mitteldeutschen. Studien zur historischen Sprachgeographie, in: Hermae N. F. 10, Tübingen.
- Schwarz, E. 1951. Deutsche und germanische Philologie. Heidelberg.
- Schwerdt, J. 2000. Die 2. Lautverschiebung. Wege zu ihrer Erforschung.

Heidelberg.

- Simmler, F. 1981. Graphematisch-phonematische Studien zum ahd. Konsonantismus. Heidelberg.
- Sonderegger, S. 1979. Grundzüge deutscher Sprachgeschichte. Diachronie des Systems, Bd. I. Berlin New York.
- Streitberg, W. 1896. urgermanische Grammatik. Heidelberg.
- Streitberg, W. Michels, V. Jelinek, M.H. 1936. Die Erforschung der indogermanischen Sprachen, Bd. II: Germanisch. Berlin Leipzig.
- Szulc, A. 1987. Historische Phonologie des Deutschen. Tübingen.
- Vennenmann, Th. 1984. Hochgermanisch und Niedergermanisch. Die Verzweigungstheorie der germanisch-deutschen Lautverschiebunge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Literatur 106. 1-45.
- Wiesinger, P. 1982. Die Reihenschrittheorie: Muster eines dialektologischen Beitrags zur Entwicklung des Lautwandels, in: Besch et al. 1982 83, 1.1: Dialektologie: 144-151. Berlin New York.
- Willmanns, W. 19113. Deutsche Grammatik, I. Abt.: Lutlehre. Straßburg.

Zusammenfassung

Zum Sinn und den internen Prozessen der hochdeutschen
Lautverschiebung

Wan-Yong Song (Sogang Uni.)

Da die hd. LV in einem Kausalzusammenhang verlaufen sein müsste, ist sie im weiteren Sinne zu verstehen. Das meint: Der Wandel $\text{Ḟ} > \text{d}$ muss auch in diese Kategorie gehören.

Für die sinnvolle Deutung des hd. LV wäre sehr aufschlussreich, die Lautsysteme der beiden Sprachen miteinander zu kontrastieren: Voralthochdeutsch(mit LV) und Voralfränkisch(ohne LV). Dabei könnten wir sehr gute Gründe entdecken, wieso die beiden Sprachen auf denselben Reiz der hd. LV ganz unterschiedlich reagieren.

Beim Lautwandel verändern sich in der Tat nicht einzelne Laute, sondern korrelierte Laute parallel. Nach der sog. Reihenschrittheorie können wir theoretisch rekonstruieren, welche allophonische Zwischenstufen die hd. LV voraussetzte.